

다산포럼

나는 기억하고 너는 재생한다



최명원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기억’이라는 말이 있다. 컴퓨터가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마도 애당초 그 이름을 얻게 된 연산 능력에도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기억거리(memory)를 집어삼키는 ‘저장 처리 능력’도 한몫을 할 것이다. 간혹 들려오는 말 가운데 여자들의 초인적인 기억력 때문에 남자들이 못 살겠다 단다. 자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는 무슨 기억력이 그리도 좋은지, 꼬투리 잡혀 말싸움이라도 시작되면 도저히 당해 낼 수 없단다. 어느 집 부부싸움의 이야기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메뉴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심리 분석가들은 기억의 또 다른 한편에 ‘왜곡된 기억의 함정’이라는 다소 으스스한 경고문을 붙이기도 한다. 나는 내 기억의 장면들

을 얼마나 왜곡되게 저장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믿간을 하고 주관의 양념들을 함께 버무렸을까? 지금은 느끼는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기억의 먹거리가 된다. 이 먹거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빚어진 중기에 담겨 추억의 밥상에 차려진다. 추억을 담은 국그릇을 휘저으면서 구수한 냉이 된장국 냄새도 큼큼거리고, 입안에서 아련하게 퍼지는 향기와 함께 알싸하게 씹히는 달래 맛도 곱씹어 본다. 우리가 가슴 어느 한구석에선가 차곡차곡 쌓아 둔 지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말로는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고, 또 회상도 있다. 세 낱말을 줄 세워 놓고 하나씩 음미해 보니, 같은 듯하지만 같지 않은 다름이 담겨 있다. 추억은 회상 거리가 되지만 기억은 회상 거리가 되지 못한다. 사전을 뒤적거리지 않고도 굳이 기억과 추억의 뜻을 나누어 보려면, 기억은 요리되지 않은 재료들이고, 그 재료들이 손맛으로 버무려지고, 사색하기도, 익히지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맛을 담은 추억이 된다. 그 추억에서 배어 나오는 은은한 향과 색은 회상의 몫이다. 기억의 재료는 신선할 수도 있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그리고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내동댕이쳐진 것도 있어,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지만, 기억들이 곱씹히며 나뉘면 건 좋은 손길이 지나간 흔적을 담은 추억은 짜고 매울 수도 있고, 달콤하기도 또는 쓰디쓴 맛이 스며든 것일 수도 있다. ‘나쁜 기억’은 있어도 ‘나쁜 추억’이라는 말은 그래서 썩 내키지 않는다. 그리고 ‘나쁜 회상’이란 말은 아예 없다. 가수 이소리가 노랫말을 쓴 ‘바람이 분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같은 시지만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해 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추구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저면에서는 로봇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체, 즉 로보트로 완벽하게 변신한 인체를 원한다. 사람은 자주 로봇이 되려 하고(인간의 기계화), 로봇은 자주 인간이 되려 한다.(기계화) 그런데 이 두 방향의 노력은 안타깝게도 하나의 접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뼈와 살과 세포들이 번번하지 못해서 하나둘씩 야금야금 튼튼하고 변질되지 않는 기계로 대체해 가던 그 어느 시점에서 나는 완벽한 기계로봇인 me-로봇이 되고, 다른 저면에서는 기계로 태어나서 그 부품 하나하나가 빠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되어 울먹이며 피 흘리는 i-로봇이 된다 한들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같은 추억을 만들 수 없다. 기억의 왜곡은 인간들을 ‘똑똑지 못한’ 마물로 전락시키고, 왜곡은커녕 한 치의 오류도 허락하지 않는 로봇(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기억 능력은 신의 경지를 넘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기억이라는 것일까? 그저 완벽한 재생이나 재현만을 위해 기억의 이름으로 저장된 코드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것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디지털 재생의 도돌이표만을 땀도는, 그래서 추억의 맛을 낼 수도, 회상의 색을 입힐 수도 없는 그런 재생의 조각들. 내 몸에 흐르던 피와 멈추지 않던 생각이 버무려져 왜곡의 존극을 빛어내는 기억의 엉뚱함도, 손맛 어린 추억의 아련함도 모른 채 회상의 향기도 색깔도 낼 수 없는 너는 재생만을 되풀이할 뿐이야, 나는 기억하는 것일!

기고

강진만 춤추는 갈대와 가을 추억 쌓기



강진원
강진군수

생물종이 무려 1131종에 이르는 남해안 최대 생태서식지 강진만.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강진만은 그동안 아껴둔 천혜의 자연공간이자 관광자원이다. 강진군이 이를 여행자와 전국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제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다. 삶에 지친 도시민들이 갈대 물결 사이를 거닐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감성축제다. 가을 여행자들의 선택으로 손색없을 것이다. 이번 축제의 협력목표는 ‘명품 생태관광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주요 행사들은 방문객과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강진읍내 오감통에서는 사흘간의 역동적인 음악여행이 펼쳐진다. 행사는 27일 오

후 갈대숲을 걷는 개막식으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어 강진만 선셋 사랑 소원의 길, 강진만 갈대 야간경관 체험, 강진만 별빛 사이 가을데이트, ‘강진만 갈대’ 오행시 짓기, 강진만 갈대숲 전국촬영대회가 이어진다. 체험놀이 행사로는 포토체험, 희망과 함께 소원을 비는 연과 풍등 날리기, 강진만 갈대 갑옷 만들기, 갈대미로정원, 갈대공예 및 갈대잎 파피 만들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을 갈대소풍 일정을 마련했다. 공연행사는 ‘오감통 3일간의 음악여행’이라 이름짓고 준비했다. 강진만 갈대숲 음악여행과 음악여행 프로젝트, 보이는 ‘라디오 강진’, 군민과 함께하는 오감통 프렌즈콘서트도 열린다. ‘공정으로 보는 나이롱극장’과 가을밤 감성콘서트, 강추리다인터이형 페스티벌, 강진오감통 빅할로윈 파티, 오감통 사일런트 댄스파티, 가는 팝파티-풍요의 계절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흥을 돋운다. 행사들은 크게 갈대축제장과 강진읍내 오감통 두 곳에서 열린다. 축제 성공과 함께 강진읍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강진만은 잠재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합쳐 새로운 관광지로 태어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정밀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강진만에는 남해안 11개 하구 평균보다 두 배나 많은 1131종의 다양한 길, 강진만 갈대 야간경관 체험, 강진만 별빛 사이 가을데이트, ‘강진만 갈대’ 오행시 짓기, 강진만 갈대숲 전국촬영대회가 이어진다. 체험놀이 행사로는 포토체험, 희망과 함께 소원을 비는 연과 풍등 날리기, 강진만 갈대 갑옷 만들기, 갈대미로정원, 갈대공예 및 갈대잎 파피 만들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을 갈대소풍 일정을 마련했다. 공연행사는 ‘오감통 3일간의 음악여행’이라 이름짓고 준비했다. 강진만 갈대숲 음악여행과 음악여행 프로젝트, 보이는 ‘라디오 강진’, 군민과 함께하는 오감통 프렌즈콘서트도 열린다. ‘공정으로 보는 나이롱극장’과 가을밤 감성콘서트, 강추리다인터이형 페스티벌, 강진오감통 빅할로윈 파티, 오감통 사일런트 댄스파티, 가는 팝파티-풍요의 계절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흥을 돋운다. 행사들은 크게 갈대축제장과 강진읍내 오감통 두 곳에서 열린다. 축제 성공과 함께 강진읍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강진만은 잠재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합쳐 새로운 관광지로 태어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정밀조사한 결과

다. 식물종도 풍부하지만 어류를 포함한 동물들의 ‘움직임’이 다른 곳에 비해 확실한 차이, 우위를 점한다. 바로 손에 잡힐 듯 자연 생태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쟁쟁어와 철계의 활발한 움직임이 특히 눈에 띈다.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이러한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은 강진만이 유일하다. 바닷물의 들고 남에 따른 조수간만의 차는 강진만 갈대숲의 또 다른 매력이다. 밀물 때 들어온 갯벌이 썰물 때 생태탐방로를 살포시 덮어놓은 자리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 안전한 데크에서 누리는 이러한 경험은 흔치 않다. 또 다시 밀물은 들어올 테고 어떤 여행자는 이러한 경험을 예상치 못한 가운데 썰물 때 탐방로에 들어섰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사이 강진만이 스며있는 갈대숲은 뒤질 세라 춤을 춘다. 발길을 이 곳으로 옮기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꿔왔다. 강진만 갈대숲과 생태계를 보면서 아이들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어른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왔던 길과 앞으로의 체함에 대해 얘기꽃을 피울 수 있다. 가을여행의 힐링 종착지, 바로 강진만이다.

社說

여수 경도 연륙교 사업비 업자가 부담해야

개발이나 환경 보전이나를 놓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세의 편익을 생각하고 환경을 말하는 이들은 후세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나 표를 먹고 사는 민선 단체장들로서는 한기하게 후세의 편익까지를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애초 생각했던 장밋빛 꿈이 현실에서도 실현된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청사진과는 달리 중도에 차질을 빚게 되면 이도 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수의 경도 개발 계획이 그렇다. 복합 관광 레저단지의 화려한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애물단지가 되었다. 급기야 전남개발공사가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논의하다 얼마 전 미래에셋에 일괄 매각했다. 3576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골프장과 콘도 및 상업용지 등을 3423억 원의 헐값에 판 것이다. 대신 미래에셋이 앞으

로 5년간 최소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최고의 명품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는 약속을 바친 했다. 한때 최근 미래에셋 측은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을 전남도에 요구했다고 한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지난 8월 미래에셋 금융그룹 컨소시엄을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후 12월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연륙교 건설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가 긍정적 검토에 들어갔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민간사업 대상지의 기반시설에 쏟아부은 것은 옳지 않다. 연륙교 건설에는 무려 6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민간유치도 좋지않은 업자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어서 안 된다. 사업을 통해 수혜를 보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전담 경찰 있으나 마나... 절도범 활개

30대 절도범이 광주 지역 초등학교 10여 곳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나 경찰은 김새마져 알아차리지 못해 학교 안전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검거된 절도범의 행각은 일선 학교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 준다. 지난 2010년 대낮 서울에서 초등학교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던 ‘김수철 사건’ 이후 당국은 학교전담 경찰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보안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직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큰 사고가 터지면 그때만 부산을 떨다가 곧바로 잠잠해지니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절도범은 주로 점심시간 초등학교의 빈 교실만 골라 범행했다. 교사들이 교실 책임이나 사물함 등에 지갑을 넣어 놓고도 제대로 간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노린 것이다. 외부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교문 관리실이나 행정실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그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복도 등에서 교직원과 마주치더라도 학부모라고 둘러댔다는데 더 이상 캐묻는 사람은 없었다. 피의자는 복구의 같은 초등학교를 세 번이나 들락거렸지만 이 학교는 단 한 차례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전담 경찰 역시 감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리니 학부모들은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그나마 절도 사건에 그쳤지만 학교를 안방처럼 활보했던 범인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노렸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경찰과 연계해 다시 한 번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정확한 신상 파악은 기본이요 미시적은 일이 발생할 경우 쉬쉬할 게 아니라 곧바로 경찰에 알려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69세 한 할머니가 늦깎이로 ‘문해(文解) 학교’에서 한글을 깨쳤다. “가에다 ‘ㄱ’ 하면 각하고/ 나에다 ‘ㄴ’ 하면 날하고/ 다에다 ‘ㄹ’ 하면 달하고/ 이놈의 받침 때문에 못 살겠다.” 할머니는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받아야지 속으

로 다집한다. 하지만 받침 때문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는다. “에고 에고 못살겠네/ 아무한테 말 못하고 속만 끓이네/ 100점 받은 짝꿍에게/ 결눈질에 눈뜨리만 걸어지네-.”

최근 나온 ‘보고시픈 당신에게’(한빛비즈 퍼블)에 실린 김춘자 할머니의 ‘춘자 여자

있게 노는 시구이다. 한글을 막 배운 할머니의 시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시인의 시는 다르면서도 나름대로 맛깔스러운 우리 말을 문자로 만곡하게 한다. 기억, 니, 은, 디글, 리을... 선생님의 입 모양을 따라 한글 자음을 처음 배우고, 간이 그려진 공책에 토박토박 한글을 처음 써 보던 때가 언제였을까? 초등 1학년으로 짐작되는 그 시절 기억은 까마득하다.

한글 사랑

이만하면 출세했지’라는 제목의 시 일부이다. 비록 받아쓰기에서 100점은 받지 못하지만 한글을 익힌 덕분에 혼자서 버스를 타고 말네 집에 가고, 은행에서 남 도움 없이 돈을 찾는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진다. 다른 시를 한 편 읽어 보자. “민들레 도라지 바리바리 드리고/ 밭그레 다랑어 부리부리 슈르고/ 불푸레 미란다 소리소리 지르고/ 말랑말랑 발랑발랑/ 칠랑칠랑 살랑살랑...” 성기완 시인의 작품 ‘ㄹ’ 가운데 한 부분이다. 자음 ‘리을’이 입안에서 사랑을 굴리듯 리듬감

은 반포 570돌이었다. 쓰고, 말할 수 있는 는 모국어가 있어 행이만하면 출세했지’라는 제목의 시 일부이다. 비록 받아쓰기에서 100점은 받지 못하지만 한글을 익힌 덕분에 혼자서 버스를 타고 말네 집에 가고, 은행에서 남 도움 없이 돈을 찾는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진다. 다른 시를 한 편 읽어 보자. “민들레 도라지 바리바리 드리고/ 밭그레 다랑어 부리부리 슈르고/ 불푸레 미란다 소리소리 지르고/ 말랑말랑 발랑발랑/ 칠랑칠랑 살랑살랑...” 성기완 시인의 작품 ‘ㄹ’ 가운데 한 부분이다. 자음 ‘리을’이 입안에서 사랑을 굴리듯 리듬감

정춘 특·특

스톱 매트릭스



박준성
광주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과학자, 철학자, 비즈니스 리더들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미래의 후손들이 만든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을 확률이 최대 50%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연구진들이 가상현실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2016년 10월 9일 오후 8시부터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가 첫 시험을 본 뒤 광주로 내려왔죠. 덕분에 친구처럼 지내는 선·후배들이 모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시절 사건들의 ‘펼플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재탕, 삼탕을 넘어 사골뺀가 우리나라 못해 녹아 버릴 정도로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잡다한 농담들이 섞이고 서로 입담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는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2명,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며 대학원 석사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인 사람 1명, 다음 팟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 1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1명, 그리고 그냥저냥 될 대로 될 대로 살고 있는 다. 과

거의 이야기는 즐거웠는데 미래의 이야기는 참으로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뜬금 없이 이런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왜 사나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제 기억에 남아 있는 ‘논스톱’ 시리즈의 결말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이랬던 사람들이 난관을 뚫고 어찌됐건 잘 살고 있다”입니다. 어렸을 적, ‘나도 커서 저렇게 되겠지?’라며 다음 시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은연중에 ‘저렇게 되겠지?’에 ‘잘 살고 있다’라는 결말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20대 중·후반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벽을 씌없이 두드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게 있는 데 전공 살려 일해야지’였습니다. 현실은 ‘전반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였습니다. ‘논스톱’에 나오던 인물들의 난관은 참 쉽게 뚫렸던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난관은 두터운 정도를 넘어서 강철 콘크리트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졸업하고 느꼈던 첫 깨달음이며, 가장 큰 좌절은 “하고 싶었던 일은 그저 하고 싶었던 일일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음은 “무조건 엑셀이다.” 거참. 4년 동안 글쓰기만 배웠는데...

면 탈출법은 어쩌면 죽음일지도 모르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파헤칠 수 없는 것은 죽음 밖에 없으니가. TV뉴스에서 청춘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죽음이 ‘트루먼 쇼’의 탈출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진짜 현실이 어마무시한 시궁창일지도 모를 일이지만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세상이 가짜라고 해도 우리는 진짜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설정된 난이도가 매우 높을 뿐.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구요. 문득 떠오른 글귀를 찾아보니 이백의 ‘산중문답’이라는 시였습니다. 시의 마지막 글귀는 ‘이곳이 인간세계가 아닌 별천지라네’입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제 방이 아주 아늑해 보이네요. 지금은 2016년 10월 10 오전 4시 33분입니다. 작금의 청춘에게 위로도 응원도 이제는 제 기능을 못하는 이때, 한숨 폭자고 일어나면 저의 친구들과 내가 모르는 여인가의 친구들 모두 어찌됐건 잘 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물론 저도요.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열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